

September 13, 2017

Asia and the Pacific

콜레스테롤 감소를 위해 개발된 귀리 품종

남호주연구개발소(SARDI)의 연구진들은 증가된 수준의 베타글루칸을 가진 새로운 고수확 귀리 품종을 개발했다.

Kowari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품종은 다른 품종들보다 베타글루칸을 많이 생산하는 왜소형 귀리이다. 베타글루칸은 혈중 콜레스테롤 재흡수를 감소시키는 천연 당분이다. 이 품종은 시장에서 다른 품종들에 비해 더 많은 수확량을 생산하고 나은 병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Kowari는 SARDI의 국립 귀리 육종 프로그램의 제품이며 이 프로그램은 호주 시장에서 대부분의 귀리 품종을 생산했다. Kowari 종자는 내년까지 호주에서 시판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rimary Industries and Regions of South Australia](#)

Europe

유럽식품안전청 논문심사, 글라이포세이트는 내분비 교란 성질이 없다고 결론 내려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글라이포세이트의 잠재적인 내분비 교란 성질(화학 호르몬)에 대하여 살충제 위해성평가의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위해성평가는 독성학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에스트로겐, 안드로겐, 갑상선 혹은 스테로이드 생성 작용 기작을 통해 글라이코세이트가 내분비 교란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증거로 제시하면서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생태독성 연구도 위와 같은 결론과 대치되지 않았다.

논문을 보려면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search

중국농업과학원, 배추좀나방에 저항성가지는 생명공학양배추 개발

중국농업과학원 연구진들은 배추좀나방(*Puella xylostella*)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Bt유전자를 양배추에 성공적으로 삽입했으며, 이 연구결과는 *Scientia Horticulturae*에 게재되었다.

연구진들은 아그로박테리움을 매개로 한 형질전환을 이용하여 Bt cry1IaB유전자를 지닌 생명공학양배추를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형질전환 식물체는 배추좀나방 유충에 민감하고 Cry1Ac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통제가 가능하였다. 또한 연구팀은 4개의 단일 복제 계통과 그 자손들에서 Bt 유전자의 발현과 유전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도입 유전자가 양배추 게놈에 성공적으로 삽입되었고 그 자손에서 유전자의 유전이 멘델의 분리 패턴을 따랐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search article](#)